

150억원 규모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郡,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소비 촉진 기대

전통시장·영세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 증대

해남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해남군 지역화폐 ‘해남사랑상품권’이 지난 17일 발행됐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해남읍 NH농협 해남군지부 옆 무대에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상품권의 판매를 개시했다.

선포식에서는 1호 가맹점 지정서 전달식과 함께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참석자들이 농협 군지부에서 상품권을 구매, 인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지역상품권 발행은 민선 7기 군정 핵심공약 중 하나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영세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15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으로 해남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천원권과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등 4종이 발행되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1천700여개소 지역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매 및 환전은 해남군내 농협, 축협, 광주은행, 신한, 우리신협, 새마을금고에서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연간 400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17일 전통시장을 찾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고 있는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해남군 농민수당 규모는 9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군은 농민수당 외에도 각종 시상금과 공직자 복지 포인트 등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유통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

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사랑상품권이 유통되면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민수당 등과 연계해 지역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김병용기자



전동평 영암군수, 강원도 산불피해 위문

郡공무원과 지역기업 5천만원 상당 온정의 손길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17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인 강원도 고성군을 방문, 이경일 고성군수를 만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영암군 전 공직자들은 화마로 인해 일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해 567만원의 성금 모금을 시작으로 영암소재 기업인 버들농산영농조합법인(류충연 대표)이 소중한 뜻에 동참하며 영암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 10kg 짜리 1천 박스(4천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또한 금호축산영농조합법인(이행도 대표)도 곤포사일리지 120롤(700만원 상당)을 축산농가에 직접 전달하는 등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

들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기를 영암군민과 함께 간절히 바랐다. 특히 서남해안에 위치한 영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는 600km가 넘

는 거리로 전 군수가 직접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화재로 인해 전 국민들이 걱정과 근심이 많았다”며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가까이 참여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타 지역 등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는 적극 자원봉사활동을 실시, 봉사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이어 “영암군도 대형화재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와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암군은 피해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올해 영암군 공직자 소통·공감 교육’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영암=이봉영기자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오늘 개막

매주 금·토·일 오후 7-10시...공연장소 2개소로 확대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이 19일 올해 대장정을 시작한다.

여수시는 18일 “10월 20일까지 매주 금·토·일 오후 7시부터 3시간동안 여수밤바다 해안산책로에서 다채로운 거리 문화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공연 구역을 5개소로 집약

하고 장소별로 댄스·무용, 어쿠스틱, 폴 밴드, 퍼포먼스 등 특화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관객과의 소통과 교감을 높이기 위해 자율버스커 공연장소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렸다.

또한 국내버스커 경연대회를 개최해

지역 공연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제버스커 초청공연도 진행한다.

낭만버스킹 개막식은 19일 오후 7시 이순신광장에서 시민과 관광객 등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개막식에는 ‘넌 내게 반했어’를 부른 ‘노브레인’과 ‘미스트롯’에 나왔던 ‘요요미’ 등 정상급 가수가 출연해

행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개막식은 MBC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며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이 원도심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진 축제 한 마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28만여명이 공연을 즐겼다. /여수=김진선기자

영광군, 道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영광군은 최근 3일간 광주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2019 전남도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영광군 등 전남도의 지자체 및 기업

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전남일보 주최로 추진됐으며 귀농·귀촌 세미나, 귀농귀촌 토크쇼, 시·군 정책 설명회 시간 등을 구성해 귀농·귀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

다.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인증 발급,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도시민에게 영광의 맛과 멋(농특산물, 문화관광)소개, 귀농귀촌 성공사례, 귀농 귀촌인들이 생산한 농·특산물 전시 등 영광만의 차별화된 정보를 소개했다.

이날 많은 도시민이 찾아와 귀농·귀촌상담 및 영광 농·특산물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귀농·귀촌 박람회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담양군민의 상·명예군민증 수여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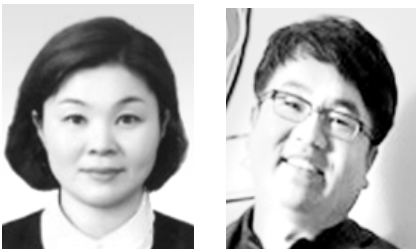
김미선 작가 외 5명·다니엘 팩시디스 외 2명

담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담양군민의 상 및 담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별 대상자를 선정했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담양군민의 상’ 본상에는 김미선 공예작가(교육문화부문)가, 장려상에는 김성식 씨(지역개발부문), 오흥영 씨(사회복지부문), 차상준 씨(산업경제부문)가, 그리고 특별상에는 이은성, 조숙희 씨가 각각 선정됐다.

‘담양군민의 상’ 본상 수상자인 공예작가 김미선 씨는 지호공예의 복원과 체계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능기부 등을 통한 지역민 대상 예술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교육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아 본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다니엘 팩



김미선



다니엘팩시디스

시디스 페이스튼 국제학교장은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담양캠퍼스 유치를 통해 담양군이 인본중심의 명품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원산업 최철원 대표는 매년 장학금 기탁으로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남도금형㈜ 오기종 대표이사는 지역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담양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게 됐다. /담양=정승균기자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급매 - 6500만원
- 문의. 010-6834-7400